

歷代 學校 文法の 副詞語 研究*

李 恩 卿

(弘益大 教授)

要約 및 抄錄

본고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에 관한 敎育 內容이 어떻게 變遷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II章에서는 副詞語의 上位 範疇인 文章 成分 및 附屬 成分의 概念을 검토하였다. III章에서는 역대 학교 문법에서의 副詞語의 敎育 內容을 검토하였다. III.1.에서는 副詞語의 概念을 살펴보았는데, ‘用言, 副詞 등을 修飾하는 말’로 정의한 교과서가 가장 많았다. III.2.에서는 副詞語의 形式을 살펴보았는데, ‘副詞’ 單獨形, ‘體言+副詞格助詞’ 構成, ‘用言語幹+副詞形語尾’ 構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III.3.에서는 副詞語의 分類를 살펴보았는데, 副詞語의 下位 部類로 成分 副詞語, 文章 副詞語의 이분 체계를 제시한 교과서가 가장 많았다. IV章에서는 副詞語와 關聯된 範疇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V.1.에서는 ‘體言+副詞格助詞’ 構成, IV.2.에서는 接續 副詞를 역대 학교 문법에서 어떠한 文章 成分으로 규정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 核心語 : 副詞語, 副詞語의 概念, 副詞語의 形式, 副詞語의 分類, 文章 成分

I. 序 論

본고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에 관한 敎育 內容이 어떻게 變遷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學校 文法은 학교에서 敎育하기 위한 문법으로, 그 敎育 內容이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變化해 왔다. 학교 문법의 敎育 內容 가운데 副詞語는 일반적으로 文章 單元에서 文章 成分을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교수·학습할 때 다루게 되는 內容 要素이므로, 歷代 高等學校 文法 教科書에서도 文章 成分에서 모두 부사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사어의 概念, 부사어의 形式, 부사어의 分類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달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부사어의 교육 내용에는 혼란스러운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歷代 高等學校 文法 教科書를 대상으로 하여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教育 內容이 어떻게 變遷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는 1963년 學校 文法 統一案이 공포된 이후 1968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교과서로, 총 26종이다. 이 교과서들은 다음 (1)과 같이 第1次 統一 文法 檢認定 時期인 제1기, 統一 文法 國定 時期인 제2기, 第2次 統一 文法 檢認定 時期인 제3기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

(1) 가. 제1기: 第1次 統一 文法 檢認定 時期(총 18종)

ㄱ. 제1-1기(1968): 강복수 외, 강운호, 김민수 외, 양주동 외, 이길록 외, 이승녕, 이은정, 이을환, 이인모, 이희승, 정인승, 최현배, 허웅

ㄴ. 제1-2기(1979): 김민수, 김완진 외, 이웅백 외, 이철수 외, 허웅

나. 제2기: 統一 文法 國定 時期(총 4종)

ㄱ. 제2-1기(19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ㄴ. 제2-2기(199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ㄷ. 제2-3기(199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편

ㄹ. 제2-4기(20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다. 제3기(2012): 第2次 統一 文法 檢認定 時期(총 4종): 박영목 외, 윤여탁 외, 이남호 외, 이삼형 외²⁾

-
- 1) (1)의 시기 구분은 김인정 교과서인지 국정 교과서인지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는 발행 연도에 따라 다시 하위 구분을 하였다. 목록을 제시할 때 동일한 연도에 발행된 교과서의 경우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편의상 ‘○○○ 외’로 제시하였다.
- 2) 2012년부터는 ‘독서와 문법’이라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교과서로 『독서와 문법 I·II』가 사용되고 있다. (1)의 교과서는 문장 성분을 다루고 있는 『독서와 문법 I』을 가리킨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章에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上位 範疇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살펴본다. III章에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와 관련된 敎育 內容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副詞語의 概念, 副詞語의 形式, 副詞語의 分類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IV章에서는 副詞語와 關聯된 範疇를 역대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검토한다.

II. 副詞語의 上位 範疇

副詞語는 文章 成分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부사어의 敎育 內容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文章 成分을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지, 副詞語의 上位 範疇는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文章 成分에 대하여 定義를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類型으로 기술하였다.⁴⁾

(2) 가. 文章을 構成하는 要素: 강복수 외(1968), 강윤희(1968), 양주동 외(1968), 이길록 외(1968), 이인모(1968), 이희승(1968), 김민수(1979), 문법(1985, 1991)

나. 文章 안에서 일정한 文法的 機能을 하는 部分: 김민수 외(1968), 이을환(1968), 정인승(1968), 이웅백 외(1979), 이철수 외(1979), 문법(1996, 2002), 박영목 외(2012), 윤여탁 외(2012), 이남호 외(2012), 이삼형 외(2012)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의 개념을 ‘문장의 구성 요소’로 정의한 (2가)의 유형에 비하여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 정의한 (2나)의 유형이 더 많다. 특히 제2-3기 이후에는 (2나)의 유형으로 통일

3) 역대 학교 문법에서 부사어와 관련하여 사용한 다양한 용어를 아우를 때에는 문법(2002)의 용어를 기준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4) 교과서의 목록은 발행 연도가 앞선 것부터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기술의 편의상 (1나)의 교과서들은 ‘문법(1985)’, ‘문법(1991)’, ‘문법(1996)’, ‘문법(2002)’로 제시하기로 한다.

되었으므로, 문장 성분에 대한 정의가 機能을 중시하는 쪽으로 變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

문장 성분 가운데 副詞語의 上位 範疇를 설정한 경우, 정인승(1968)은 ‘꾸밈 성분’, 김민수 외(1968)은 ‘枝葉 成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외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附屬 成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속 성분 범주를 정의할 때는 다음 (3)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기술하였다.

- (3) 가. 主成分에 附屬된 成分: 이길록 외(1968), 이은정(1968), 이인모(1968), 이희승(1968), 이철수 외(1979)
- 나. 主成分을 修飾하는 成分: 양주동 외(1968), 이을환(1968), 정인승(1968), 이웅백 외(1979), 문법(1996, 2002), 박영목 외(2012), 윤여탁 외(2012), 이남호 외(2012), 이삼형 외(2012)
- 다. 文章 成立에 隨意的인 成分: 김민수(1979)
- 라. 主成分을 修飾하는 成分으로, 隨意的인 成分: 김완진 외(1979), 문법(1985, 1991)

(3가)의 유형은 주성분에 부속되거나, 없거나, 딸리어 쓰인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속 성분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 유형은 부속 성분이 문장에서 줄기나 뼈대를 이루는 주성분에 떨어져 붙어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3나)의 유형은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부속 성분이 주성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주목한 정의이다. 역대 학교 문법 가운데는 이 유형으로 부속 성분을 정의한 교과서가 가장 많다.

(3다)의 유형은 부속 성분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3가)나 (3나)처럼 주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속 성분을 정의한 것이 아니다. 부속 성분이 문장 성립에 필수적이나 아니냐 하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한편 (3라)의 유형은 (3나)와 (3다)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5) 본고에서는 문법론 분야의 논의를 언급할 때에는 ‘학교 문법’과 대비하여 ‘기술 문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기술 문법에서도 (2나)의 방식으로 문장 성분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임홍빈 외 1995:217, 이홍식 1998:7, 임홍빈 외 2002:217).

정의이다.

시기별로 보면 제1기에는 (3)의 모든 유형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3가)의 유형이 가장 많았고, 제2-1기와 제2-2기에는 (3다)의 유형으로 정의되었으며, 제2-3기 이후는 (3나)의 유형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부속 성분 범주의 정의가 ‘附屬性’, ‘隨意性’에서 ‘修飾性’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⁶⁾

이에 비하여 記述 文法에서의 附屬 成分에 대한 定義는 학교 문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4) 가. 다른 성분에 딸려 있는 말이다. 문장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의적 성분이라고도 한다.(남기심 외 1993:236)
- 나. 다른 성분에 딸려 있는 성분이다. 수의적 성분인 경우가 많으나, 언제나 수의적인 성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임홍빈 외 2002:218)
- 다.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성분을 ‘附屬 成分’ 또는 ‘隨意的 成分’이라고 하며, 문법 연구에서는 ‘附加語’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영근 외 2008:273)⁷⁾

(4가)와 (4나)는 수의성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부속성’을 중시하여 정의하였으므로, (3가)의 유형과 관련된다. (4다)는 ‘수식성’을 중심으로 부속 성분을 정의하였으므로 (3나)의 유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문법에서는 ‘부속성’이나 ‘수식성’을 중시하여 부속 성분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6) 김경훈(1996:12)에서 수식어는 피수식어에 덧붙어서 그 요소에 어떤 의미를 덧붙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기술한 후, 부가어는 통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고 수식어는 의미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수식성은 의미적 기능을 중시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7) 기술 문법에서 ‘부가어adjunct’라는 용어는 구성의 성립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닌 수의적인 성분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아침을 잘 먹’에서 동사구의 핵인 ‘먹-’에 대하여 ‘아침을’은 보어이고 ‘잘’은 부가어이다(임홍빈 외 1995:293).

Ⅲ. 副詞語의 敎育 內容

본장에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敎育 內容으로 어떠한 것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어떠한 유형으로 기술하였는지를, 副詞語의 概念, 副詞語의 形式, 副詞語의 分類 순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副詞語의 概念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의 개념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5)의 제1유형은 副詞語의 概念을 意味와 關聯지어 定義한 것이다.

(5) 제1유형: 부사어는 X의 의미를 Z하는 말이다.

가. 敍述語나 用言의 意味 內容을 자세히 說明하거나 表示하는 말: 이 승녕(1968), 이응백 외(1979)

나. 用言의 뜻을 制限하는 말: 이길록 외(1968), 이희승(1968), 이철수 외(1979)

(5가)에서는 부사어가 서술어나 용언의 의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이라고 기술하였고, (5나)에서는 부사어가 용언의 의미를 제한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제1유형의 정의는 제1기의 교과서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다’, ‘의미를 제한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 (6)의 제2유형은 副詞語가 修飾의 機能을 한다는 점과 修飾의 對象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부사어를 定義한 것이다.

(6) 제2유형: 부사어는 X를 수식하는 말이다.

가. 敍述語 修飾: 강복수 외(1968), 양주동 외(1968), 이인모(1968), 문법(1985, 1991, 1996)

나. 用言 修飾: 이은정(1968), 최현배(1968), 허웅(1968, 1979), 김민수(1979), 김완진 외(1979), 이남호 외(2012)

다. 用言, 副詞 修飾: 이을환(1968), 정인승(1968)

라. 用言, 副詞語 修飾: 이회승(1968), 윤여탁 외(2012)

부사어의 수식 대상으로 (6가)는 서술어, (6나)는 용언, (6다)는 용언과 부사, (6라)는 용언과 부사어를 제시하였다. 제1기에는 제2유형의 정의가 고르게 나타나고, 제2-1기~제2-3기에는 (6가)의 유형, 제3기에는 (6나)와 (6라)의 유형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의 개념을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기술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6나)와 같이 용언을 수식하는 말로 부사어를 정의한 교과서가 가장 많다.

부사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 방식 가운데 다음 (7)의 제3유형은 副詞語의 修飾 機能과 接續 機能에 주목하여, 副詞語의 修飾 對象과 接續 對象을 명시한 것이다.

(7) 제3유형: 부사어는 X를 수식하는 기능과 Y를 접속하는 기능을 한다.

가. 用言, 冠形語, 副詞語를 修飾하고 文章, 單語를 接續함: 문법(2002)

나. 用言, 冠形語, 副詞語, 文章을 修飾하고 文章, 單語를 接續함: 박영목 외(2012), 이삼형 외(2012)

(7가)는 부사어가 용언,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기능과 문장이나 단어를 접속하는 기능에 주목하였고, (7나)는 (7가)의 기술에 부사어가 문장을 수식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제3유형의 정의는 제2-4기와 제3기의 교과서에 보인다. (7)의 제3유형에서는 (6)의 제2유형에 비하여 부사어의 수식 대상으로 관형어와 문장이 추가된 점과, 부사어의 개념에 접속의 기능이 추가된 점이 특징적이다.⁸⁾

시기별로 보면 제1기부터 제2-3기까지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이 혼재되어 있

8) 부사어의 개념에 접속의 기능이 추가된 것은 접속 부사가 부사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접속 부사의 기능 가운데 접속의 기능이 우세한지 수식의 기능이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손남익(1995:63), 서정수(2005: 41-42)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식의 기능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IV.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고, 제2·4기 이후에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에 대해서 제2유형으로 정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記述 文法에서는 副詞語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8) 가. 敍述語에 덧붙여서 그 뜻을 限定하여 주는 말이다.(남기심 외 1993: 271)

나. 주로 敍述語의 意味를 修飾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冠形語나 副詞를 수식하기도 한다.(임홍빈 외 2002:232)

다. 體言이 아닌 여러 文章 成分을 修飾하는 성분이다.(서정수 1994: 665)

라. 일차적으로 用言을 꾸며 주고 그 다음으로 語尾와 結合하여 文章의 成分으로 機能한다.(고영근 외 2008:273)

(8가)는 제1유형으로 정의하였고, (8나)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을 복합하여 정의하였다. (8다)는 제2유형, (8라)도 일차적으로 용언을 수식한다고 보았으므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사어는 다양한 대상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8가)처럼 서술어의 의미를 한정한다고 기술하거나 (8라)처럼 용언을 수식한다고 기술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이홍식 1998:34). (8나)에서는 부사어가 서술어, 관형어, 부사를 수식한다고 하여 수식 대상을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⁹⁾

역대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의 정의를 고려하면,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를 제2유형으로 정의하되 수식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쪽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副詞語의 概念: 副詞語는 用言, 副詞, 冠形詞, 文章 등을 修飾하는 成分이다.

9) 역대 학교 문법이나 기술 문법에서 부사어가 수식하는 대상을 명시할 때 ‘서술어, 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용언, 부사’ 등의 품사로 기술하기도 하여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Ⅲ.3. 副詞語의 分類’에서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기술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副詞語의 形式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形式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多樣하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대체로 品詞와 관련하여 副詞語의 形式을 提示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본고에서도 부사어의 형식을 부사와 관련된 제1형식, 체언과 관련된 제2형식, 용언과 관련된 제3형식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제1형식은 副詞와 관련하여 副詞語의 形式을 제시한 것이다. 역대 학교 문법에 제시된 제1형식을 다시 하위 부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0) 가. 제1-1형식: 副詞

ㄱ. 밥을 다 먹었다.(강복수 외 1968:114)

ㄴ. 세월이 빨리 간다.(이철수 외 1979:64)

나. 제1-2형식: 副詞+補助詞

ㄱ. 꼭도 아름답다.(허웅 1968:124)

ㄴ. 또한 무척이나 맑아 보인다.(문법 1996:74)

(10가)의 제1-1형식은 부사 단독형이 부사어로 제시된 것이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모두 부사 단독형을 부사어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10나)의 제1-2형식은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된 구성이 부사어로 제시된 것이다. 이 형식은 김민수 외(1968), 최현배(1968), 허웅(1968, 1979), 이응백 외(1979), 문법(1996)에 제시되었다.

제2형식은 體言과 관련하여 副詞語의 形式을 기술한 것이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제2형식을 다시 하위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 (11)과 같다.

(11) 가. 제2-1형식: 體言+副詞格助詞

ㄱ. 나무로 집을 만든다.(양주동 외 1968:110)

ㄴ. 나는 늘 동생보다 일찍 일어난다.(문법 1996:74)

나. 제2-2형식: 體言

ㄱ. 나는 여기 있겠다.(강복수 외 1968:115)

ㄴ. 동생 주었습니다.(이응백 외 1979:99)

다. 제2-3형식: 體言+補助詞

- ㄱ. 그는 나만 돈을 주었다.(강복수 외 1968:115)
 ㄴ. 그것을 자네도 보여 주지.(이은정 1968:128)
 라. 제2-4형식: 依存名詞句
 ㄱ.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이웅백 외 1979:98)
 ㄴ. 옷을 입은 채 물 속에 뛰어들다니!(문법 1985:79)

(11가)의 제2-1형식은 體言에 副詞格 助詞가 結合된 構成이 副詞語로 쓰인 것이다. 제2-1형식은 강복수 외(1968), 강윤희(1968), 김민수 외(1968), 양주동 외(1968), 이길록 외(1968), 이송녕(1968), 이은정(1968), 이인모(1968), 이희승(1968), 최현배(1968), 김민수(1979), 김완진 외(1979), 이웅백 외(1979), 이철수 외(1979), 문법(1985, 1991, 1996), 윤여탁 외(2012)에 제시되었다. (11나)의 제2-2형식은 體言 單獨形이 副詞語로 쓰인 것으로, 강복수 외(1968), 김민수 외(1968), 이송녕(1968), 이은정(1968), 이인모(1968), 김민수(1979), 이웅백 외(1979)에 제시되었다. (11다)의 제2-3형식은 體言에 補助詞가 結合된 構成이 副詞語로 쓰인 것으로, 강복수 외(1968), 김민수 외(1968), 이은정(1968)에 제시되었다. (11라)의 제2-4형식은 副詞의 性格을 띠고 있는 依存 名詞가 앞의 冠形語와 함께 構成을 이루어 副詞語 기능을 하는 것으로,¹⁰⁾ 강복수 외(1968), 양주동 외(1968), 이웅백 외(1979), 문법(1985, 1991)에 제시되었다.

제3형식은 用言과 관련하여 副詞語의 形式을 제시한 것이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제3형식의 하위 유형으로는 다음 (12)가 있다.¹¹⁾

(12) 가. 제3-1형식: 用言語幹+副詞形語尾

- ㄱ.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라.(양주동 외 1968:111)
 ㄴ.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었다.(문법 1991:83)

- 10) ‘옷을 입은 채로’와 같이 부사성 의존명사구 뒤에 조사가 결합한 형식도 가능하나 독자적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11) 문법(2002) 이후로 동일한 어미가 부사형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양쪽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학교 문법을 따른다면 제3-1형식과 제3-2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이전의 학교 문법에서는 둘을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도 두 형식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제3-2형식: 用言語幹+從屬的連結語尾

ㄱ. 길이 갈수록 험하다.(강복수 외 1968:115)

ㄴ. 공부하리 한국에 유학 왔습니다.(이응백 외 1979:98)

(12가)의 제3-1형식은 用言語幹에 副詞形語尾가 결합되어 副詞語로 기능하는 것으로, 강복수 외(1968), 강윤희(1968), 김민수 외(1968), 양주동 외(1968), 이길록 외(1968), 이승녕(1968), 이은정(1968), 이인모(1968), 최현배(1968), 김완진 외(1979), 이철수 외(1979), 문법(1991)에 제시되었다. (12나)의 제3-2형식은 用言語幹에 從屬的連結語尾가 결합되어 副詞語로 기능하는 것으로, 강복수 외(1968), 김민수 외(1968), 이희승(1968), 김민수(1979), 이응백 외(1979)에 제시되었다. 제3-1유형은 부사절이 부사어로, 제3-2유형은 종속 접속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형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副詞語의 形式을 종합하면, 제1-1형식인 副詞單獨形이 26종, 제2-1형식인 ‘體言+副詞格助詞’ 구성이 16종, 제3-1형식인 ‘用言語幹+副詞形語尾’ 구성이 12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의 형식 가운데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용언어간+부사형어미’ 구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별로 보면 제1기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어를 기술할 때 비교적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제2기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제1-1형식인 副詞單獨形과 제2-1형식인 ‘體言+副詞格助詞’ 구성을 중심으로 부사어의 형식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 부사어의 형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점차 대표적인 형식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記述 文法에서는 副詞語의 形式을 다음 (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3) 가.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부사성 의존명사구, 용언어간+부사형어미, 부사절(남기심 외 1993:271-274)
 나. 부사, 부사+보조사, 부사구, 체언+격조사, 의존명사구, 의존명사구+격조사, 명사구+격조사, 용언어간+부사형어미(김경훈 1996:19-22)
 다.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부사성 의존명사구, 용언어간+부사형어미(이홍식 1998:31-32)

라. 부사, 부사격조사구, 단순 명사구, 부사성 의존명사구, 부사구, 연결 어미구(임흥빈 외 2002:233-234)

마.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부사+보조사, 부사성 의존명사구, 부사절 (고영근 외 2008:312-314)

역대 학교 문법의 다양한 부사어 형식과 기술 문법에서 제시한 부사어의 형식을 참조하면 학교 문법에서도 부사어의 형식을 다음 (14)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²⁾

(14) 副詞語의 形式¹³⁾

가. 副詞 關聯 形式: 副詞, 副詞句

나. 體言 關聯 形式: 體言+副詞格助詞, 名詞句+副詞格助詞, 體言, 名詞句

다. 用言 關聯 形式: 副詞節

3. 副詞語의 分類

歷代 學校 文法에서는 副詞語의 下位 部類를 설정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으나, 다음과 같이 부사어를 몇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누어 설정한 문법 교과서가 있다.

(15) 가. 제1유형: 成分 副詞語, 文章 副詞語: 문법(1985, 1991, 1996, 2002)

나. 제2유형: 成分 副詞語, 文章 副詞語, 接續 副詞語: 이삼형 외(2012), 박영목 외(2012)

12) 문법 교과서에서 부사어의 형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활동을 할 때 언어 자료 속의 부사어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사어의 형식을 (14)와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명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조사와 어미를 핵으로 하는 문법적 관계를 도입하면 ‘체언+부사격조사’는 부사격조사구, ‘부사절’은 부사형어미구 등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나, (14)에서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의존명사구는 명사구에 포함하였고, 보조사는 다양한 형식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다.

(15가)의 제1유형은 副詞語의 修飾 對象이 무엇인가를 基準으로 하여 부사어를 成分을 修飾하는 副詞語와 文章을 修飾하는 副詞語의 두 가지로 分類한 것이다. 제1유형의 분류는 제2기의 교과서에만 나타난다. 제1유형으로 부사어를 분류한 교과서 가운데 문법(1985, 1991, 1996)은 부사어의 하위 부류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를 설정하고, 접속 부사는 부사어가 아닌 독립어로 규정하였다. 반면 문법(2002)는 ‘그러나’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와 ‘및’과 같은 성분 접속 부사를 모두 접속 부사어로 부르고, 접속 부사어를 문장 부사어 안에 포함시켰다.¹⁴⁾ 그러나 성분 접속 부사는 문장을 접속하는 부사어가 아니므로 이를 문장 부사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¹⁵⁾

(15나)의 제2유형은 修飾의 機能을 하는 副詞語를 修飾 對象에 따라 成分 副詞語와 文章 副詞語로 나누어 놓고, 接續 副詞語를 이 둘과 같은 層位에 제시한 分類 방식이다.¹⁶⁾ 제2유형의 분류는 제3기의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제1유형의 분류에서 성분 접속 부사와 문장 접속 부사를 모두 문장 부사어의 하위 부류로 처리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유형의 분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사어를 분류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사어의 기능을 수식과 접속의 둘로 나누어 분류하면 수식 부사어와 접속 부사어의 둘로 나뉘고, 다시 이들을 각각 수식 대상과 접속 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수식 부사어는 성분 수식 부사어와 문장 수식 부사어로, 접속 부사어는 성분 접속 부사어와 문장 접속 부사어로 나눌 수 있

14) ‘및, 또는’ 등의 접속 부사를 문법(2002:154)에서는 단어 접속 부사라 규정하였으나, ‘원서 교부 및 서류 접수’ 등과 같이 단어보다 큰 통사 단위를 접속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단어 접속 부사’ 대신 ‘성분 접속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5) 이흥식(1998:34)에서도 문장의 연결과 무관한 ‘및’을 문장 부사어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6)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론에서 부사를 기술할 때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접속 부사’ 등으로 나누어 기술한 경우가 많으나, 김정훈(1996:10)에서는 어떤 성분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은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으로서의 부사어이므로 부사를 성분 수식 부사와 문장 수식 부사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선웅(2012:178)에서도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 접속 부사어’ 등으로 가르는 문제는 품사론이 아니라 문장 성분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Ⅲ.1.의 (9)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수식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다른 통사 단위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어의 일차적인 기능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수식과 접속이 부사어를 분류하는 대등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수식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면 成分 接續 副詞은 成分 修飾 副詞로, 文章 接續 副詞은 文章 修飾 副詞로 분류되어야 한다.

記述 文法에서도 副詞語의 修飾 對象에 따른 下位 部類로 다음 (16)과 같은 것을 설정하였다.¹⁷⁾

(16) 가.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남기심 외 1993:274)

나.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어, 준문장 부사어, 문장 부사어(서정수 1994:666)

다. 동사-부사(어), 동사구-부사(어), 문장-부사(어)(임홍빈 외 1995:296)¹⁸⁾

라. 동사 수식 부사어, 동사-마 수식 부사어, 동사구 수식 부사어,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김경훈 1996:48-52)¹⁹⁾

기술 문법의 관점에 따라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15가)의 제1유형과 같이 성분 수식 부사어와 문장 수식 부사어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접속 부사어를 하위 부류로 설정할 근거는 없어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분 수식 부사어와 문장 수식 부사어로 나누는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부사어의 하위 부류에 대하여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成分 副詞語를 설정한 교과서의 경우, 이 범주에 대하여 “성분 부사어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17) 기술 문법에서는 형태론적 기준이나 의미론적 기준 등에 따른 부사어의 분류도 제시되었으나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분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18)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잘 먹는다’, ‘열심히 아침을 먹는다’, ‘유감스럽게도 철수가 밤참을 먹는다.’와 같다.

19)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매우 [뜨겁-]’, ‘책을 사러 [서점에 들어가-]’, ‘어제 [서울에는 눈이 오-]’, ‘아마 [지금쯤 편지가 도착했겠-]’, ‘실례지만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와 같다.

설명에 있어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成分 副詞語가 특정한 品詞를 修飾한다고 기술한 것이다(문법 1985:81-82, 1991:84). 이 유형에서는 성분 부사어가 (17가)에서는 ‘동사’, (17나)에서는 ‘형용사의 연결형’, (17다)에서는 ‘관형사’, (17라)에서는 ‘체언’을 수식한다고 설명하였다.

(17) 가.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떠납시다.

나. 어제는 너무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다. 그것은 아주 새 차로구나.

라. 겨울 셋이 그들과 겨울 수 있겠니?²⁰⁾

제2유형은 成分 副詞語가 특정한 文章 成分을 修飾한다고 기술한 것이다(문법 1996:74). 이 유형에서는 성분 부사어가 (18가)에서는 ‘서술어’, (18나)에서는 ‘관형어’를 수식한다고 기술하였다.

(18) 가.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떠납시다.

나.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한편 제1유형과 제2유형을 혼합하여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19) 가.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문법 2002:154)

나.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문법 2002:154)

다. 연이 매우 높이 나는구나.(이삼형 외 2012:277)

문법(2002)와 이삼형 외(2012)에서는 성분 부사어가 (19가)에서는 ‘용언’, (19나)에서는 ‘관형어’, (19다)에서는 ‘부사어’를 수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9가)의 예문을 설명하면서 ‘서술어’를 수식한다고 기술하지 않고 ‘용언’을 수식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제1유형의 기술 방식을 따르고 있고,

20)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를 김경훈(1996:8-9)에서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분석하였다.

(19나)와 (19다)의 설명에서는 제2유형의 기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제2-1기와 제2-2기에는 제1유형으로 기술하였고, 제2-3기에는 제2유형으로 기술하였다가, 제2-4기 이후에는 복합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문법에서도 성분 부사어의 수식 대상에 대해서는 기술 방식이 다양하다. 남기심 외(1993:274)에서는 성분 부사어가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를 수식한다고 설명할 때는 제2유형의 입장을 보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할 때는 제1유형의 입장을 보여 기술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경훈(1996:9)에서는 副詞語가 뒤에 오는 用言이나 副詞를 修飾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술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많이 먹었다’에서는 부사어 ‘많이’가 ‘먹었다’가 아니라 ‘먹-’을 수식한다고 보아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어간을 수식하고 있으며, ‘예쁘게 웃는 소녀’에서 부사어 ‘예쁘게’는 관형어 ‘웃는’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웃-’을 수식한다고 기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식 관계를 앞에 오는 어떤 문장 성분이 뒤에 오는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문장 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특정 품사를 수식하는 관계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분 부사어의 수식 대상에 대한 기술은 제1유형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²¹⁾

다음으로 歷代 學校 文法에서 文章 副詞語 범주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문장 부사어 범주 및 용어를 설정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모두 문장 부사어가 文章 全體를 修飾하는 副詞語라고 정의하였다(문법 1985, 1991, 1996, 2002, 박영목 외 2012, 이삼형 외 2012). 문장 부사어의 경우는 문장을 전체를 수식한다는 점 외에 더 구체적으로 수식 대상을 세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20) 가. 과연 그의 예언대로 되었구나.(박영목 외 2012:227)

21) 김완진 외(1979:113-114)에서는 부사어는 용언에 꾸밈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문장의 주성분들인 주어, 서술어, 보어 및 목적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나. 확실히 오늘 경기는 신나는 한 판이었어.(문법 1996:74, 2002:154)
 다. 다행스럽게도 영수가 반장이 되었다.(문법 1991:84)

기술 문법에서도 문장 부사어의 수식 대상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남기심 외(1993:275)에서는 문장 부사어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교 문법에서 부사어의 분류 체계는 수식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2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1) 副詞語의 分類²²⁾

가. 成分 副詞語: 用言, 副詞, 體言, 冠形詞을 修飾하는 副詞語

나. 文章 副詞語: 文章을 修飾하는 副詞語

IV. 副詞語 關聯 範疇

‘體言+副詞格助詞’構成과 ‘接續 副詞’의 文章 成分에 대해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부사어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고 다른 문장 성분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본장에서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과 ‘접속 부사’를 대상으로 하여, 역대 학교 문법에서 이들을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기술해 왔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1. ‘體言+副詞格助詞’構成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구성에 대해서는 역대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기술한 방식이 다양하나, 크게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인정하면 부사어를 (16라)처럼 분류할 수도 있으나,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을 선어말어미구나 어말어미구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21)에서는 학교 문법의 용어를 수용하여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1유형은 ‘體言+副詞格助詞’ 構成을 對比語, 位置語, 方便語, 引用語 가운데 하나로 기술한 것이다. 허웅(1968, 1979)에서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모두를 이 네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²³⁾

(22) 가.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허웅 1968:119)

나. 뜰에 나가 놀아라.(허웅 1979:125)

다. 낮으로(써) 풀을 벤다.(허웅 1979:126)

라. 저는 복동이라고 부릅니다.(허웅 1968:233)

(22가)는 대비어, (22나)는 위치어, (22다)는 방편어, (22라)는 인용어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허웅(1968, 1979)에서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이 체언에 의해 만들어진 성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이 구성을 부사어로 기술하지 않고 (22)의 네 성분으로 규정하였다.²⁴⁾

제2유형은 ‘體言+副詞格助詞’ 構成 가운데 一部를 補語로 기술한 것이다. 역대 문법에서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가운데 보어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23) 가. 물이 얼음과 같다.(김민수 외 1968:102)

나. 이슬이 수증기로 되는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이을환 1968:79)

다. 우리는 그이를 산장이라고 부른다.(양주동 외 1968:44)

(23가)의 ‘體言+과’ 構成을 보어로 기술한 교과서로는 강윤호(1968), 김민수 외(1968), 양주동 외(1968), 이송녕(1968), 이인모(1968), 정인승(1968),

23) 대비어는 비교나 함께 함, 위치어는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의 위치, 방편어는 수단·방법·자격·방향 등, 인용어는 남의 말을 인용하는 말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라고 기술하였다.

24) 허웅(1968, 1979)에서는 부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분만 부사어로 규정하였다. 문장 안에서의 기능보다는 어떤 품사로 만들어진 성분인가 하는 점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22)의 성분을 부사어로 처리하지 않은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민수(1979), 이응백 외(1979), 이철수 외(1979)가 있다. (23나)의 ‘體言+로’ 構成을 보어로 기술한 교과서로는 양주동 외(1968), 이승녕(1968), 이을환(1968), 이희승(1968), 김민수(1979)가 있다. (23다)의 ‘體言+라고’ 構成을 보어로 기술한 교과서로는 양주동 외(1968), 이승녕(1968), 이희승(1968), 김민수(1979)가 있다. 이 외에 체언에 ‘에, 에게, 한테, 께, ‘로서, 로써’, ‘하고’ 등의 조사가 결합된 구성을 보어로 기술한 교과서로 김민수(1979)가 있다. 이 교과서들에서는 위에 제시한 구성은 補語로 기술하고, 이 외의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은 副詞語로 기술하였다.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에 대한 제2유형의 기술 방식은 제1기의 교과서에만 나타난다.

제3유형은 ‘體言+副詞格助詞’ 構成을 副詞語로 기술한 것이다. 이 유형은 기술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3-1유형은 ‘體言+副詞格助詞’ 構成 모두를 副詞語로만 기술한 것이다. 역대 문법 교과서 가운데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에 대해서 다른 성분으로 기술하지 않고 부사어로만 규정한 것이 있다. 이에 강복수 외(1968), 이길록 외(1968), 이은정(1968), 최현배(1968)이 있다. 이 유형은 제1-1기의 교과서에만 나타난다.

제3-2유형은 ‘體言+副詞格助詞’ 구성을 副詞語로 규정하되, 그 가운데는 必須的인 成分도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가운데 일부를 수의적 성분이 아니라 필수적 성분으로 인식하면서도, 주성분으로 기술하지 않고 부속 성분 가운데 하나인 부사어로 기술하였다.

김완진 외(1979:123)에서는 ‘부사 또는 부사어에 의한 용언부의 확대’와 ‘불완전 용언에 의한 용언부의 확대’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수의적 부사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3-2유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24) 가. 내가 고기를 칼로 썰었다.

나. 나는 그 분을 스승으로 삼았다.

(24가)는 서술 용언에 부사어를 얹어 용언부를 확대한 예이고, (24나)는 불완전 용언인 서술 용언에 체언구를 보충해서 용언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24나)의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필수 성분으로 규정하면서도 문장 성분은 부사어로 기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대 문법 교과서 가운데 문법(1985, 1991, 1996, 2002)는 김완진 외(1979)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어받아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모두 부사어로 규정하되, 수의적으로 쓰이는 것과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25) 가.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나.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다.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라.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문법 1985:81, 1991:83)

(25)의 예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밑줄 그은 부사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며(문법 1985:81, 1991:83), 부사어는 대부분 수의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지만 서술어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성분이 되기도 한다고 기술하였다(문법 1996:74, 2002:154).²⁵⁾

이상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에 대하여 명칭을 붙이지는 않고 설명만 하였으나, 윤여탁 외(2012:92)에서는 ‘必須 副詞語’, 이남호 외(2012:201)에서는 ‘必須的 副詞語’라는 명칭을 붙였다.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에 대해서 제3-2유형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제1-2기에 나타났으며, 제2기~제3기의 교과서는 제3-2유형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술 문법에서도 논란이 있다.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가운데 일부를 보어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성분이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점, 문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점이다.²⁶⁾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기술

25) 문법(2002:154)에서는 필수적인 부사어의 형식에 ‘용언어간+-게’ 구성을 포함시켜 부사절 형식도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었다.

26) 최호철(1995:489)에서는 보어로 ‘로’형인 방편어와 ‘에’형인 위치어 둘만 설정하고 나머지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은 부사어로 규정하는 등 기술 문법에서도 조사구와 절 형식을 대상으로 보어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보

문법에서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부사어는 수의적인 성분으로 기술된다(임흥빈 외 1995:223-232, 이흥식 1998:10). 학교 문법에서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가운데 일부를 보어로 규정한 제2유형은 이러한 기술 문법의 논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²⁷⁾

반면 남기심 외(1993:263-264)에서는 제2유형의 기술 방식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제3유형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된 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용언은 수도 많지 않으며, 그 통사적 특징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문장 성분을 일률적으로 부사어로 보고, 용언이 그 개별적 특성에 의해 이들 부사어 중의 어느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즉 문장 성분론에서 다루기보다는 용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전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남기심 외(1993:278-279), 고영근 외(2008:310) 등에서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부사어로 규정하면서도 부사어 가운데는 서술어가 必須적으로 요구하는 副詞語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제3-2유형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²⁸⁾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학교 문법에서도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모두 부사어로 기술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필수적 부사어로 인정하는 제3-2유형으로 기술한 현재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6) ‘體言+副詞格助詞’ 構成의 文章 成分은 副詞語이다.

어론이 본고의 중심 주제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 27) 그러나 임흥빈 외(1995:232)에서는 해당 성분의 결여나 생략이 통사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 경우 그 성분의 보어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보어가 의미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우는 그것이 보어인지 어떤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일이 적지 않다고 하여 보어 설정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 28) 남기심 외(1993:265)와 고영근 외(2008:303)에서는 필수적 관형어도 인정하고 있다.

2. 接續 副詞

본절에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接續 副詞를 어떠한 文章 成分으로 규정해 왔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 (27)은 ‘및, 또는’ 등의 成分 接續 副詞가 사용된 문장이고, (28)은 ‘그리고, 그러나’ 등의 文章 接續 副詞가 사용된 문장이다.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는 접속 부사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기술해 왔다.

(27) 가. 입회금 및 회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김민수 1979:114)

나. 박군 또는 김군이 적격자가 아닐까요?(양주동 외 1968:49)

(28) 가. 나는 바다로 간다.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겠니?(이길록 외 1968:42)

나. 철수는 우등생이다. 그리고, 영희도 우등생이다.(이웅백 외 1979:101)

제1유형은 接續 副詞를 非成分語로 규정한 것이다. 역대 문법 교과서 가운데 양주동 외(1968)에서는 성분 접속 부사와 문장 접속 부사를 접속어라 부르기는 하였으나, 문장 성분이 아니라 앞뒤의 말에 포괄되는 비성분어로 보았다.

제2유형은 接續 副詞를 문장 성분 가운데 接續語로 규정한 것이다. 접속어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2유형은 제1기의 교과서에만 나타나는데, 접속 부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접속어로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제2-1유형은 (27)의 成分 接續 副詞와 (28)의 文章 接續 副詞를 모두 接續語로 규정한 것이다. 김민수 외(1968), 이인모(1968), 김민수(1979), 이철수 외(1979)가 이 유형에 속한다. 제2-2유형은 앞뒤 문장을 접속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28)의 文章 接續 副詞만 接續語로 규정한 것으로, 이길록 외(1968), 이승녕(1968), 이희승(1968)이 이 유형에 속한다.

제3유형은 接續 副詞를 獨立語로 규정한 것이다.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인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3유

형도 접속 부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독립어로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제3-1유형은 成分 接續 副詞과 文章 接續 副詞를 모두 獨立語로 기술한 것으로, 이에 는 하웅(1968, 1979)가 속한다. 제3-2유형은 文章 接續 副詞만 獨立語로 규정한 것으로, 이 유형에는 강복수 외(1968), 이은정(1968), 이을환(1968), 정인승(1968), 최현배(1968), 이웅백 외(1979),²⁹⁾ 문법(1985, 1991, 1996)이 있다.³⁰⁾ 제3유형은 제1기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와 제2-1기~제2-3기의 교과서에 나타난다.

제4유형은 接續 副詞를 모두 副詞語로 규정한 것이다. 제4유형은 (27)의 성분 접속 부사와 (28)의 문장 접속 부사를 모두 접속 부사어로 규정하였으며, 이 유형에는 문법(2002)과 박영목 외(2012), 이삼형 외(2012)가 속한다. 제4유형은 제2-4기와 제3기의 교과서에 나타난다.

시기별로 보면 제1기에는 비성분어로 기술한 제1유형, 접속어로 기술한 제2유형, 독립어로 기술한 제3유형이 혼재되어 있었고, 제2-1기~제2-3기에는 문장 접속 부사를 독립어로 기술한 제3-2유형으로 통일되었다가, 제2-4기 이후로는 접속 부사를 부사어로 기술한 제4유형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접속 부사의 문장 성분을 비성분어와 접속어로 규정하는 유형, 독립어로 규정하는 유형에서 점차 부사어로 규정하는 유형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記述 文法에서도 文章 接續 副詞를 제2-2유형과 같이 接續語로 규정한 고영근 외(2008)이 있고, 제3-2유형과 같이 獨立語로 규정한 남기심 외(1993)과 임홍빈 외(2002)가 있다.³¹⁾ 문장 접속 부사를 접속어나 독립어로 규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9) 접속어로 규정한 근거: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등의 접속 부사는 앞 뒤 두 문장을 이어 더 큰 문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띠고 있으며, 수식

29) 이웅백 외(1979)에서는 성분 접속 부사는 접속어, 문장 접속 부사는 독립어로 규정하여 둘의 문장 성분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30) 문법(1985:84, 1991:86)에서는 문장 부사어는 수식을 받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문장 접속 부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문장 접속 부사를 부사어가 아니라 독립어로 규정하였다.

31) 임홍빈 외(2002:233)에서는 성분 접속 부사는 접속어로 규정하였다.

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접속의 기능이 우세하다.(고영근 외 2008:318)³²⁾

- (30) 독립어로 규정한 근거: ‘그러므로’ 등은 그 뒤에 오는 말과 어울려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뒤에 오는 말과 구조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남기심 외 1993:279)³³⁾

그러나 유현경(2011:377)에서는 문장 접속 부사를 뒤에 오는 문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인 독립어로 보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등의 접속 부사가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의 정도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들을 모두 부사어로 규정하여 제4유형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³⁴⁾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면 학교 문법에서도 접속 부사의 문장 성분을 부사어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³⁵⁾

- (31) 接續 副詞의 文章 成分은 副詞語이다.

-
- 32) 그런데 고영근 외(2008:319)에서는 ‘또한, 더군다나, 도리어’ 등의 문장 접속 부사에 대해서는 접속어와 부사어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접속의 기능보다 수식의 기능이 더 우세하다고 기술하여, 문장 접속 부사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 33) 그러나 남기심 외(1993:280)의 각주 14)에서 독립어는 그 뒷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통사적인 상호 제약도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접속 부사가 독립어일 때는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접속 부사를 독립어로 보는 것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34) 민현식(1999:222)에서도 소형문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문장 접속 부사를 독립어가 아닌 부사어로 규정하였다.
- 35) 본고는 문장 성분론에서 접속 부사를 어떠한 성분으로 기술하는가를 다루고 있으므로, 접속 부사가 담화나 텍스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V. 結 論

본고에서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에 관한 敎育 內容이 어떻게 變遷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본론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章에서는 副詞語의 上位 範疇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文章 成分의 概念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정의되었다. 부사어의 상위 범주는 附屬 成分으로 기술되었는데, 부속 성분의 핵심적인 기능은 ‘附屬性, 隨意性, 修飾性’ 가운데 ‘修飾性’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높았다.

III章에서는 副詞語의 敎育 內容을 검토하였다. III.1.에서는 副詞語의 概念을 살펴보았다. 제1유형의 정의는 ‘용언의 意味를 制限하는 말’, 제2유형의 정의는 ‘용언, 부사 등을 修飾하는 말’, 제3유형의 정의는 ‘용언, 관형어, 부사어를 修飾하고 문장, 단어를 接續하는 말’이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제2유형으로 정의한 교과서가 많았다.

III.2.에서는 副詞語의 形式을 분석하였다. 역대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어의 형식으로 ‘부사, 부사+보조사, 체언+부사격조사, 체언, 체언+보조사, 의존명사구, 용언어간+부사형어미, 용언어간+연결어미’ 등의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副詞’ 單獨形, ‘體言+副詞格助詞’ 構成, ‘用言語幹+副詞形語尾’ 構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III.3.에서는 副詞語의 分類를 검토하였다. 부사어의 하위 부류를 설정한 교과서에서는 ‘成分 副詞語, 文章 副詞語, 接續 副詞語’의 3분 체계를 제시한 교과서도 있었으나 ‘成分 副詞語, 文章 副詞語’의 2분 체계를 제시한 교과서가 많았다.

IV章에서는 副詞語 關聯 範疇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V.1.에서는 ‘體言+副詞格助詞’ 構成을 역대 학교 문법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기술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제1기에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대비어, 위치어, 방편어, 인용어로 규정한 제1유형, ‘체언+부사격조사’ 구성 가운데 일부를 補語로 규정한 제2유형,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副詞語로 규정한 제3유형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제2기~제3기에는 ‘체언+부사격조사’ 구성을 副詞語로 규정하

되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을 구별하여 기술하는 제3-2유형으로 통일되었다.

IV.2.에서는 接續 副詞을 역대 학교 문법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규정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제1기부터 제2-3기까지는 非成分語로 규정한 제1유형, 接續語로 규정한 제2유형, 獨立語로 규정한 제3유형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제2-4기 이후로는 접속 부사를 副詞語로 규정하는 제4유형으로 통일되었다.

이상에서 본고는 歷代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教育 內容이 어떻게 變遷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학교 문법에서 부사어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제안해 보았다. 본고의 검토 결과가 副詞語의 概念, 副詞語의 形式, 副詞語의 分類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學校 文法에서 副詞語의 教育 內容을 構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參 考 文 獻 ◇

- 강복수·유창균(1968), 『문법』, 형설출판사.
 강윤희(1968), 『정수 문법』, 지림출판사.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 pp.27~46.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어연구소 편(1984), 「학교 문법 교과서의 변천 과정: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국어생활> 1, 국어연구소, pp.31~37.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52.
 김민수(1979),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어문각.
 김민수·이기문(1968), 『표준문법』, 어문각.
 김완진·이병근(1979),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박영사.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영목 외 5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편(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_____(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85),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1991),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출판사.
- 양주동·유목상(1968), 『새문법』, 대동문화사.
- 우형식(2002), 『국어문장성분 분류의 역사적연구』, 세종출판사.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유현경 외 6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pp.337~391.
- 윤여탁 외 8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 이길록·이명권(1968), 『문법』, 삼화출판사.
- 이남호 외 9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 이삼형 외 8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승녕(1968), 『문법』, 을유문화사.
- 이은정(1968), 『우리문법』, 문천사.
- 이을환(1968), 『최신 문법』, 양문사.
- 이웅백·안병희(1979),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보진재.
- 이인모(1968), 『새문법』, 영문사.
- 이철수·이길록(1979),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삼화출판사.
- 이흥식(1998), 「문장 성분」, 서태룡 외 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7~46.
- _____(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 _____(2005), 「한국어의 문장 성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123~150.

이희승(1968), 『새문법』, 일조각.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 생활> 10:2, 국립국어원, pp.5~26.

임홍빈·이홍식 외(2002), 『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인승(1968), 『표준문법』, 계몽사.

최현배(1968), 『새로운 말본』, 정음사.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pp.447~490.

최호철 편(2009), 『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허 응(1968),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_____(1979),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과학사.

■ ABSTRACT

A Study on Adverbials in Past School Grammar

Yi, Eun-g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nges of adverbials in past school grammar textbooks. In Chapter II, we review concepts and functions of upper categories of adverbials. In Chapter III, we review educational contents of adverbials. We examine concepts of adverbials in III.1, the main concept of adverbial is a sentence constituent that modifies verbs, adjectives, adverbs and sentences. We examine forms of adverbials in III.2, main forms of adverbials are 'adverb', 'NP + adverbial case marker' constructions and 'verb stem/adjective stem + adverbial ending' constructions. We examine classification systems of adverbials in III.3, adverbial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range of modification; constituent modification adverbials and sentence modification adverbials. In Chapter IV, we review related categories of adverbials. We examine sentence constituents of 'NP + adverbial case marker' constructions in IV.1 and sentence constituents of conjunctive adverbs in IV.2.

※ Key-words : adverbial, concept of adverbial, form of adverbial, classification of adverbial, sentence constituent